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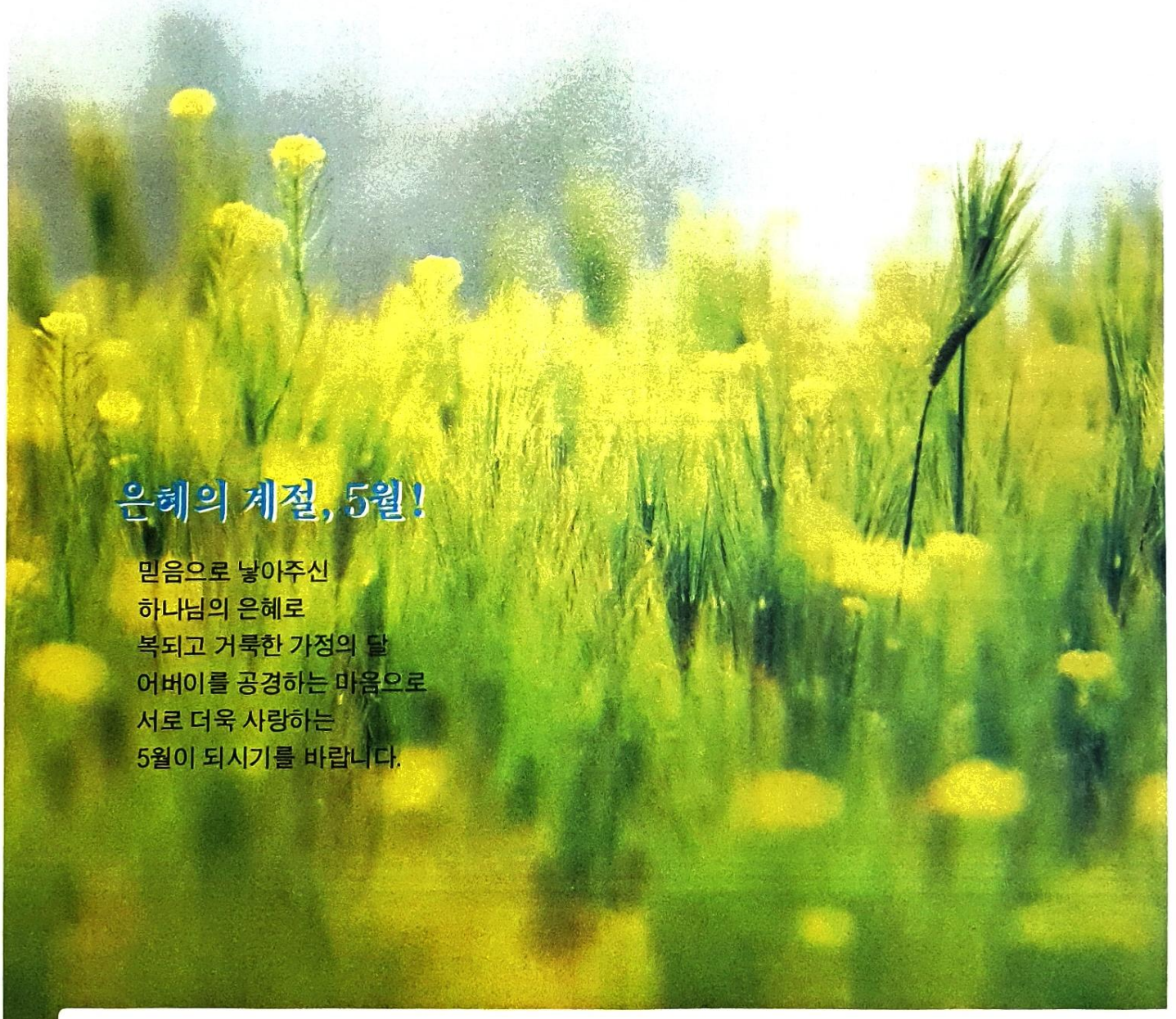
춘천성시신문

발 행 인 : 한 균

성 시 비 전
교회 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 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114호 2008년 5월



INDEX

3 글로벌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비전 캠프'
4 일터선교로 세상을 축복하라!
11 자녀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8 |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13 | 어메이징 그레이스

동방예의지국, 이제는 옛말인가?
회복해야 할 효(孝) 정신



한국 사회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2007년 경찰청 발표에 보면 한국이 하루평균 36.4명이 자살로 사망,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한다. 이혼율 또한 세계 2위로 싹 갈라섬은 나연 최고, 저출산율도 세계 1위이다. 또 음주와 청소년 흡연 인터넷음란접속률 1위, 부녀자들 유흥업소 종사자가 200만명이 넘는 등 부끄러운 통계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무엇이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를 이같은 소용돌이와 혼란의 도가니가 되게 하였는가?

가장 큰 문제의 중심에는 가정의 질서와 기존 가치관의 붕괴가 있다. 가정 안에 어른이 사라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어른에 대한 예의와 공경은 시방의 개인주의 물결 속에서 구시대의 유물처럼 되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체면문화나 유교적 가정관에 의한 효, 예의범절은 더 이상 아무리 외쳐도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공허한 늙은이의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의 중요가치관이었던 효 사상은 더 이상 힘이 없다.

어떤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성경은 우리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며 너희 착한 행실로 저들에게 비추라고 하신다.

역사의 초기,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처럼 돌보며 사랑과 정절을 지키는 일에 본을 보였다. 로마가 번성할 때 사치와 성적나락은 극에 달했고, 부정부패가 곳곳마다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이러한 때 10%도 안되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도 은밀히 신앙을 지키며, 웃어른을 공경하고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내 몸처럼 돌보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 아닌가? 결국 그들의 참되고 진실된 삶이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참된 마음과 사랑, 믿음의 효 사상이 되살아나야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효와 덕을 행하여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율법적인 억지 효도가 아닌 생명적 관계의 참된 마음과 겸손,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믿음의 효도 정신을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

흔히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라고 세상은 말을 한다. 그 속엔 좋은 의미보다는 건방지고 개인적이며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믿는 자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예의 없는 인상으로 비춰진 것은 아닐까?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기독교와 신앙인들이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마음보다 깊은 영혼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받은 사랑을 세상에 갚아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겐 있다. 하나님을 섬기되 공경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모시는 것이 신앙이다. 주를 섬기듯 남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참된 효도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서 싹터가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요즘은 가정파괴의 주범이던 대표적 이단들도 가정회복을 이뤄야 세상이 바뀐다고 적반하장 외치며 경제와 교육계를 휘어잡고, 심지어는 정치에도 뛰어들어 국회를 점령하려는 시대가 되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단들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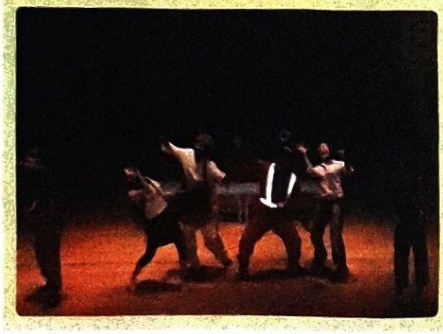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가정을 통한 천국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다. 가정의 달에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아야 한다. 이제 가정마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를 믿음 안에서 깊이 가르치자! 어른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소외되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지성으로 돌아보자! 교회마다 노인을 공경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본을 보이자!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엡 6:1-2)

[글. 춘천성시본부 부본부장 조영춘 목사]

잠자는 기독청년들이여 일어나라!

- 새로운 문화 창출 EF -



매년 5월, 춘천의 복음화를 위해 개최되던 '음악과 강연의 밤'이 2년 전부터 학원복음화협의회와 협력하여 캠퍼스 복음축제(EF: Evangel Festival)로 새롭게 거듭나 올해로 13회를 맞는다. 올해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대니 정의 색소폰 연주(음악), 난타의 퍼포먼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의 말씀 등 젊은 세대와 시대의 감각에 맞는 기회과 복음의 깊이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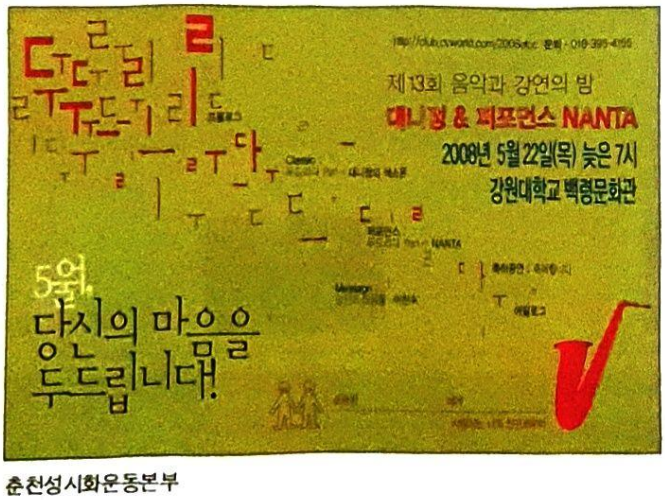
EF는

복음과 전도대상자의 접촉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복음을 이 시대 청년의 언어로 표현하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축제(Festival)이다. 또한 비기독인의 눈높이에 맞춘 전도축제이다. 기존 기독청년이나 비기독 청년 모두 복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그리고 EF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며, 새생명을 향한 공동체로 체질변화를 하게 하여 지역교회의 대학부 및 청년부의 전도 활성화와 캠퍼스 복음화를 일으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도가 힘든 이때에 춘천지역의 청년 대학생들이 EF(음악과 강연의 밤)를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며 잠자는 기독청년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EF는 1명 이상의 비신자와 동행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좌석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바람. [club.cyworld.com/2008efcc]
문의: '음악과 강연의 밤' 준비위원회
(TEL: 018-395-4155)

[자료제공. EF 준비위원회 / 글정리. 편집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DISC 행동 유형

CS강사, DISC강사 : 이 원 기 (늘사랑교회 집사)

DISC란

- 개인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가치를 파악한다.
- 사람들은 서로 다른 행동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 사람들 간의 차이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 현재 미국에서는 윌로우크릭교회의 빌하이벨스 목사님과 조지바나와 같은 교회 사역전문가들을 비롯해 유수한 교회들이 성도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이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교회, 단체, 기업체 등에서 세미나 또는 워크숍 시 DISC로 자신을 더 잘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자신의 발전과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의: 010-3078-0179



글로벌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비전캠프'

해외선교 · 교육 · 문화 탐방

지금 세계는 하루권시대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배운다. 국제무대에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국제무대인 셈이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나라를 흠모하며 성시화를 최초로 시도했었던 조그만 도시 춘천은, 어떻게 세계가 한 가족처럼 올타리를 허물고 사는 이 시대에서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 그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3~4개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200개가 넘는 전세계의 국가들을 다 다녀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그의 국제사회 속에서의 한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기대를 걸어보게 된다.

이때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어찌하면 큰 인물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한 가지 프로젝트를 개설하고자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을 세계무대에 나가 세계를 변혁시킬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마인드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기회 닿는 대로 우리만의 올타리를 헐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리라 판단하였다. 큰 교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런 기회를 갖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따라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 이 역할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중간에서 작은 교회 또는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게 된 것이다.

우선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 또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을 경험하고자 제1차 방문 국가로 선정하였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핏줄이 살고 있는 동북삼성 지역은 우리민족의 정기가 면면히 흐르고 그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 춘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련 그리고 연길, 하얼빈, 단동을 돌아보며 우리민족의 족적을 밟고 민족혼을 느끼며 백두산에 올라 민족의 한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중국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의 청소년세대들의 안목을 넓혀주며 문화적 경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선교마인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청소년들이 큰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번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선한마음을 가지고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글로벌시대에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하나님의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글. 춘천성시본부 국제위원회위원장 박인관 목사]

'청소년 비전캠프'

- 일 시: 2008년 7월 20일~26일 (5박6일)
- 장 소: 중국 대련, 단동, 백두산
- 프로그램: 독립운동 유적지방문,
  단동가나안농군학교 훈련,
  조선족교회 집회,
  백두산등정기도회 등
- 경 비: 600,000원(예상)
- 마감기간
  : 2008년 5월 31일까지 선착순 30명
- 주 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후 원: 춘천기독교연합회 선교위원회,
  춘천성시화국제위원회,
  GMP춘천지부, 팔로마 선교회
  베드로선교센터
- 문 의: 033)256-1260~1

교회부흥을 도시로! 도시부흥을 한반도로! 한반도부흥을 열방으로!

"부산 성령대집회와 Awakening 2008"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춘천성시신문 관계자들은 부산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정필도목사 · 수영로교회) 주최 '부산 성시화 성령대집회'(4월 22일 부산 수영로교회)에 참여하여, 부산에 불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초청해 열린 이날 집회는 1부 '부산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소서!'에 이어 2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소서!'로 진행됐다. 조 목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나(민 13:25~35)'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에 앞서 조용기 목사는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국의 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및 기자회견을 갖고 "50년 목회 후 은퇴신고식을 몸과 마음의 고향 부산에서 하게 돼 정말 감개무량하다"며 "은퇴 후 평양 심장병센터 건립사업 등 북한 선교에 전력하고 '사랑과 행복 나누기운동'으로 소외이웃들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정필도 목사는 "내달 1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전국 5만여 교회가 참가하는 성령강림절 연합집회 '어웨이크닝(Awakening) 2008'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www.seeds21.co.kr
MOS
95%의 합격률
싸앗은 100% 합격률에 도전합니다.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일터 선교로 세상을 축복하라!~ 직장생활과 선교,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자 : 김향수 목사(영광교회 담임), 심재훈 전도사(직장선교훈련센터 · 동부장로), 지상근 집사(춘천경찰서직장선교회장 · 나눔장로), 진상용 장로(춘천시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장 · 강원대 집수리봉사대장 · 제일감리)
진행자 : 정재호 / 사진: 김미경

탈무드에는 세 명의 석수쟁이 이야기가 나온다. 세 명의 석수쟁이가 돌을 깨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지금 돌을 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예, 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그냥 돌을 깨는 마음으로, 한 사람은 돈을 버는 마음으로, 다른 한 사람은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직업이 선교하는데 좋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하지만 직업 자체가 선교가 된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선교현장을 보면 "직업이 곧 선교"라는 자세로 헌신하는 일터 선교사가 더욱 필요하다. 직업선교는 선교현장의 현실적인 필요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총체적 선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서 일터선교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한 세상을 꿈꾸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이 왜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직장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해 달라.

▌김 향 수(영광교회)
최전방의 선교지는 바로 일터(직장)



사업을 경영하다가 목회자가 되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실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기업을 경영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최전방의 선교지는 일터, 즉 직장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춘천성시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전도는 이벤트성 집회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현재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목회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해결책은 한가지라고 생각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는 것을 증거 하면 된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전도와 섬김의 봉사는 결국 삶의 최전방 일터선교지인 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심 재 훈(직장선교훈련센터)
직업은 곧 선교를 위한 부르심의 소명

직장생활을 하다가 해외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신학교에 갔다. 해외선교만이 선교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 선교는 삶의 영역과 직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업은 곧 선교를 위한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전의 직장생활을 돌아보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워진다. 이러한 계기로 신학교 졸업 후 선교사의 마음으로 직장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 개인적 소견이지만 성시화운동은 직장선교가 활성화될 때만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춘천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말없이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 복음은 삶의 향기로 증거 되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해야 하는가? 일터 속에 있는 직장인들이 해야 한다.

현재 직장 내 신우회 및 춘천직장선교연합회의 활동을 소개해 달라. 감사한 점과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지 상 근(춘천경찰서직장선교회장)
뜨거운 찬양과 기도, 영성 있는 예배의 회복이 절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고 인상이 날카롭기가 매우 쉽다. 또한 영화 투캅스를 통해서 경찰관에 대한 선입견이 매우 부정적이다. 근무를 하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잘못된 형태는 어느 직장이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세상의 부정에 물들지 않고 모범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것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선교적 행위는 없다.

춘천경찰서직장선교회는 창립된 지 20여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매우 활성화되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외근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직장선교 활동 참여와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영성이 있는 예배의 회복이 절실하다. 개인적으로는 재범율을 줄이기 위해서 유치장전도에 힘쓰고 있고, 색소폰 연주단을 만들어 전도를 위한 연주회를 하고 있다.

▌진 상 용(춘천시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장)
집수리봉사단 창립, 8년간 어려운 이웃들의 집 수리

강원대학교 신우회는 40여명이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고, 전체모임은 교내에서 월 1회 모인다. 또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직장선교연합회 정오예배(장소:동부장로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행예배와 분기별로 저녁식사를 겸한 이벤트성 예배를 기획하여 전도를 위한 집회를 실천하고 있다. 감사한 점은 크리스천 정신을 바탕으로 집수리봉사단을 창립, 8년 동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있다. 지난달 48번째 집을 수리하였다. 집수리 봉사를 통하여 직장과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는 사람들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생각이다.

기도제목 두 가지가 있다. 우리도 춘천경찰서직장선교회와 사정이 비슷하다. 자주 모이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다. 자주 모일 수 있는 분위기와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직장인들이 좀 더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천국백성이고 시민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좀 더 선교적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생활과 직업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심 재 훈(직장선교훈련센터)
직장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과 자극을 줄 수 있는 훈련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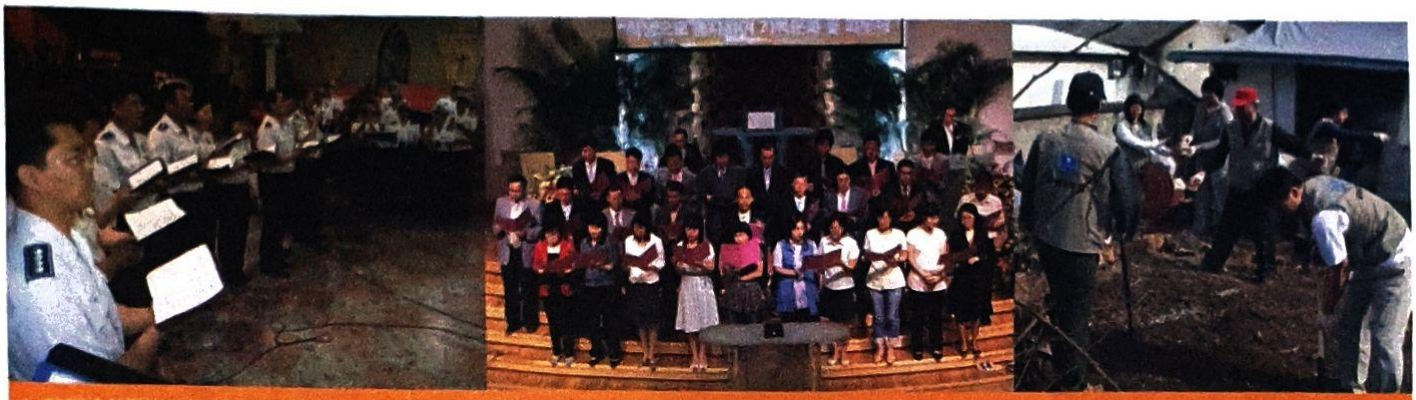


수원에 있는 기독실업인회를 섬기고 있다. 총 재적 인원이 20여명인데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5-6명에 불과하다. 현재, 모이기가 힘든 점은 한국의 어느 직장신우회도 동일한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도시인들의 바쁜 직장생활도 원인이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직업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회 중심의 예배생활에는 익숙하고 우선순위를 두지만 직업과 직장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우회 활동에 소극적이다.

둘째는,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훈련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직장신우회 활동은 예배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직장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과 자극을 줄 수 있는 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 윤리적 삶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 2007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부흥회 ▲ 2008 춘천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총회 ▲ 강원대학교 집수리봉사단의 활동 모습

▌김 향 수(영광교회)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직장인들을 제자화하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이기적인 모습을 돌아보며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보다 내 교인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목회자는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초월하여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

예전에는 전도를 하여 결실을 맺으면 주변에 가까운 건전한 교회로 인도하였다. 요즘에는 교인들 입에서도 교인쟁탈전이라는 부끄러운 단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직장선교를 바라보아야 한다. 내 교회만을 부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서는 직장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은 가질 수 없다. 직장을 복음화 하여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비전을 가질 때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직장인들을 제자화하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인들에게 직장선교와 소명에 대한 비전을 주고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훈련을 통해 격려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춘천지역의 영적지도자들과 기독 직장인들에게 부탁하실 말씀은.

▌지 상 근(춘천경찰서직장선교회)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직장선교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다. 직장 내에서 하루 종일 직장동료와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속일수가 없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말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독직장인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상대방을 염두에 두면서 행동해야 한다. 이를 후배 직장인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한다.

그리고 직장선교 혹은 신우회활동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관심과 격려, 또 교회들의 적극적인 후원 없이는 매우 어렵다. 직장선교사역이 실제적인 전도와 선교사역이 되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 협력을 부탁드린다.

▌진 상 용(춘천시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직장 내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반드시 지켜야



먼저 후배 직장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다. 크리스천이기 앞서 일반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지키라는 점이다. 종종 신앙을 잘못 내세우면서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직장인들을 보게 된다. 직장상사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과 예의 직장 내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직장인들이 겪는 직장 내 고충을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좀 더 눈높이를 맞추셔서 직장인들의 현실을 파악하시고 낮아져서 본을 보여주시면 기독직장인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이다.

▌정 재 호(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직업과 직장이야말로 선교의 최전방이라는 일터소명을 가지고 바쁜 시간을 쪼개며 직장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모쪼록 이 자리가 계기가 되어 춘천에 직장선교가 활성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능력 있는 직장인들을 양육하는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감사드린다.

YHWH THEOLOGICAL SEMINARY

2008학년도 야웨[יהוה]신학교

신(편)입생 모집요강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

yhwhschool.org

모집 과정	학 제	교육 내용	특 전	수업 일수	캠퍼스	비 고
상담인구원 (M.Aequ.)	2년 4학기 (매학기 3개월) 개강 3월, 9월	기독교상담사 양성 교육	전문분야별 기독교상담사 자격 획득	매주 1회	춘천, 서울	매학기 실습
성경학부 (B.Th.equ.)	2년 6학기 (매학기 3개월) 개강 1월 5월 9월	신앙 인격 및 교양	신학연구원 진학	매주 2회	춘천, 서울 청주, 시베리아	신학연구원 동시 수강
신학연구원 (M.Div.equ.)		목사(선교사) 양성교육	목사 임직 (선교사 파송)	매주 2회	춘천, 서울 청주, 시베리아	청주캠퍼스 (3년 6학기)
성경대학원 (Th.M.equ.)		본문주해설교 성경-교수법	성경학 강사 자격 획득	매주 1회	춘천, 서울	연구실적물 출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야웨신학교 교무처(033-253-7942)로 문의 바랍니다.

춘천캠퍼스 :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46-5번지(춘천재입장로교회 생활복지관)
교무처장 김학균 목사 | 전화 : 010-8901-0059 TEL 033) 253-7942 FAX. 242-5179
청 주 캠 퍼 스 :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120-1번지(코스모스선교교회) | 전화 : 043-223-0975 | 010-5588-9848
러시아캠퍼스 : 러시아 중남부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베라교회)

야웨[יהוה]신학교 YHWH THEOLOGICAL SEMINARY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10번지 E&C 벤처드림타워 2차 1301호
전화 : 02-3281-9256(Fax 겸용) | 019-375-9256 | 011-340-5205
홈페이지 : yhwhschool.org | 이메일 : yhwhschool@hanmail.net



주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광명교회는 1986년 9월에 창립되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표방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성도,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힘써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이다.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광명교회(김종익 목사)편입니다

김종익 목사



김 목사가 오경희 사모와 함께 광명교회를 개척한 것은 지금부터 22년 전. 춘천이 고향이었던 김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기도전 뜨거운 복음전파의 사명을 갖고 신학생의 신분으로 효자2동에서 교회를 시작한다. 고향이 신남(현 김유정 역 근처)이었던 김 목사가 사역자의 길로 나서게 된 사연은 각별하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김 목사는 미처 첫 돌도 되기 전 책상 모서리에 오른쪽 가슴을 부딪쳤다고 한다.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은 갈비뼈가 눌러 앉으며 늑막염으로 발전하게 되고, 조기치료의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된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당시로서는 병명조차 알 수 없었으며, 급기야는 호흡곤란증세와 함께 약사동의 성 골롬반 의원에서 사망판정까지 받게 되었다. 장례하기 위해 어린 생명의 시신을 업고 오던 모친은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이 어린 생명을 살려만 주시면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한다. 처음부터 김 목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김 목사는 모친의 서원 기도 이후 극적으로 소생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탓에 김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당연히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고, 교회 고등부 시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경험한 이후 더 깊은 소명감에 불타게 되었다고 한다.

광명교회





광명교회는 개척 후 효자 2동의 한 건물 3층을 임대하여 6년을 지냈다. 개척교회였지만 선교 중심, 구제 중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수고하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주 사역으로 원했던 김 목사는 교회를 건축할 비용으로 좀 더 많은 주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집권 전후 시절, 임대교회 폐지 바람이 불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 등록이 취소되는 방향으로 종교법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 교우들의 비상 기도 가운데 임대교회 정책에서 교회부지 마련정책으로 목회 철학이 변경되고 이로 말미암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 현재의 교회이다. 원래는 모 침례교회의 건물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현 교회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아름다운 사역

광명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광명교회가 있으므로 인근 지역이 밝고 활력이 넘치며 춘천이 거룩한 도시화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따라 수 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인근 노인정을 방문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상담하고 있으며, 월드비전과 함께 '사랑의 도시락' 운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이웃과 주변으로부터 좋은 소문이 난 광명교회. 교회 큰 행사 때마다 어르신들과 이웃주민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한다.

또한 광명교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행1:8)를 말씀에 따라 필리핀을 집중 선교지로 정하고 파송 선교사와 함께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사공세현 선교사(중앙장로교회. 사공정 목사 장남)를 일찍이 파송하였고, 사공선교사는 필리핀 따끌로반 지역에서 교도소 사역과 어린이 급식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 선교부에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역을 격려, 후원하고 있으며 알파사역을 병행하여 전개되는 선교지 사역에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장로교연합회 수석 부회장이며 교역자연합회 총무이기도 한 김 목사는 춘천성시화와 교회일치운동을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는 김종익 목사, 오경희 사모, 주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는 광명교회 교우들이 있기에 하나님나라와 춘천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이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 교회 단신 LOVE 콘서트



춘천중앙감리교회(담임목사:권오서)는 4월 5일(토) 오후 3시 교회 대예배실에서 창립110주년 기념하여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의 'LOVE 콘서트'를 열었다. 또 6일(주일) 오전 예배에는 지난 100여년 역사와 춘천의 선교활동을 기록한 영상물을 감상하며 창립 110주년(1898~2008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장로교연합 한마음체육대회 & 사랑의 바자회



- 일 시 : 2008년 5월 12일(월) 오전10시~오후4시
- 장 소 : 동내초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 대 상 : 춘천장로교연합 회원교회(목회자와 성도)
- 행사내용
  1부/ 예배, 2부/ 운동경기 &사랑의 바자회(먹거리장터),
  3부/ 공동체게임

※춘천장로교연합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장로교연합회 『명 패』

춘천장로교연합 회원교회

춘천장로교연합회에서는 춘천지역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연합과 이단 및 불건전한 단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춘천장로교 회원교회의 명패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직 신청하지 않으신 교단 및 교회(한국장로교총연합회 소속)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010-2061-2161(장로교연합회 총무 김원중목사)

| 영혼의 양식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

갈라디아서 5: 1~15



박기권 목사 (그레이스교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자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면서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믿는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유함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자유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적인 생활에 대해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율법은 결코 성도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적인 윤리의 개념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유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지키고 획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유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자유를 행사할 때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가 있지만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제사상에 올려 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되 만약 누가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유의 행사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키기 위해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자유함에 대해 말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의 본질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섬기는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거나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좋은 학문과 가문과 종교적 열심과 물질을 주의 복음을 위해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의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님이 주신 더 좋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자신이 누릴 자유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종으로서의 자유, 섬김의 자유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 사색의 창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변춘자 권사 (소양성결교회 예수사랑선교부 총무)



어제(19일) 우리 아이들(장애우)과 함께 봉의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다. 벚꽃은 이미 다 떨어지고, 하얀 싸리꽃이 조금씩 피어있었다.

해마다 봄, 가을이면 매주 춘천근교로 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우리 아이들은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 교회 선교관에서 예배드릴 때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안심하지만, 야외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부담이 있음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럼에도 야외로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며 지내는 2시간이 이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과 평안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 가을이 되면 봉의산, 화목원, 공지천, 장절공, 춘천댐 등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택해서 야외예배를 드리러 나간다.

봄날의 따스함 속에 12년 동안 우리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말학교에 기슴 벅찬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렸다.

지역 내에 있는 장애아동과 장애인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문하고 전도하며,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작된 장애인 사역은 이원호목사님과 딤딩교역자님들, 그리고 디앙한 방법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 또한 유일하게 지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토요일을 반납하고 우리아이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주말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지금에 이른 것이다. 주님이 그 사랑의 봉사에 크게 복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린다.

어제 우리아이 중에 한 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님께 예배드렸다. 건강이 안 좋아서 학교엔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 토요일 아침 7시부터 교회에 보내달라고 떼쓰는 아이를 막지 못하고 부모님은 교회로 보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산만한 덩치로 바닥이 꺼지도록 뛰면서 예배드리는 천진스런 이들의 예배가 아닐까. 이 감동이 있는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주말학교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섬겨줄 분들의 헌신을 부탁드린다.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360@hanmail.net(기사투고) T. 256-1260-1 F. 033)257-1260

創立 41週年

창립 초청 감사 주일

초청 강사 : 고 영 원 전도사(찬양 사역자)

(대표 곡 '부흥', '비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흥 2000', '파동의 노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영광 주 앞에' 등)

▶일 시: 2008년 5월 11일 주일저녁 7:30분

▶장 소: 춘천 그리스도의 교회 (조영호목사 시무)

춘천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제19차기 임원소개

- 연 합 회 장 : 양봉남 장로(춘천시청:미래기획팀장)
- 수석부회장 : 김영래 권사(강원농협지역본부)
- 부 회 장 : 장기영 집사(강원일보)
  정동준 안수집사(강원도교육청)
  김지현 집사(앤투어여행사)
  김동한 장로(춘천시청)
- 총 무 : 박찬주 집사(월드비전)
- 서 기 : 장만성 권사(한림대학교)
- 회 계 : 엄선영 집사(월드비전)
- 감 사 : 임광혁 권사(강원도청)
  한재혁 권사(강원도교육청)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허 천 장로(신성교회) 편입니다

지난 4 · 9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허천 장로를 만났다. 당선 후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17대를 마무리하는 일과 여러 곳의 인터뷰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을 때(의외로 단출하고 소박했다) 상석을 양보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겸손함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경험하면서 느끼신 점과 재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17대 때는 정치적 배경도 불리했고, 상황도 나빴습니다. 당시 야당이었고,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까지 갖고 겨루어야 했습니다. 도의회 의장의 문제로 낙선대상자 명단에까지 거론되어 있었으니까요. 조건은 나쁜데, 마음은 편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선되도록 하셨죠. 그런데, 18대에는 환경과 조건은 좋았어요.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지역에서 국무총리가 세워졌지요, 그런데 마음고생은 많았습니다. 때로 네거티브 공세로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 수도 있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일일이 대처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춘천시민들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참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느낍니다. 재선의원으로써 더욱 열심히 활발하게 일함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정치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는?

"저는 과거 4H구락부를 통해 농촌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농촌운동을 하다 보니 농민의 대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5공 때 선거인단 선거에서 선거인이 되었는데, 그 후 91년도에 도의원에 첫 당선되어 내리 3선을 지냈고, 도의장까지 맡게 되면서 지금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농민과 지역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일하시다 보면 지역을 돌보아야 하는 점과 또 당이나 국가를 위해 일하는 데에 있어 서로 상충되는 점은 없으신지요?

"한 예로 한미 FTA 같은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지역의 이익과 당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이럴 때는 소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미 FTA에 따른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당의 중론이 있지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때는 소신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독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과 모델로 삼고 계신 정치인이 계시다면?

"먼저 '남궁 억' 장로에 대한 책을 읽은 후 그분이 정치인으로, 사회사업가로, 교육가로서 그 근본에 있는 하나님중심 사상을 보면서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독정치인이 하나님중심의 신앙이 모든 일에 근간이 되어야겠지요.

또 한 분은 자신의 집무실을 기도실이 되게 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난관을 기도로 이겨낸 모습은 기독정치인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주일을 지키는 것은 괜찮은데 서울을 오가다 보니 새벽기도가 힘든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당 경선과정에서부터 지켜보면서 참 본이 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경선과정에 날마다 티지는 어려운 공세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조금도 구김 없이 대처하는 모습과 또 일에 대하여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진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일에 대해 많은 점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주로 조찬기도회가 많습니다. 당내에서 조찬기도회가 매달 열리고,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당에는 이경재 장로께서 회장으로, 제가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때로 기도회 때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하며 통성기도를 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밖에도 당을 초월해서 교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때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도심지 내에 종교시설을 건축할 때 주민 80%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게 하는 법이 정부안으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긴장하였고 법안에 건교위 상정 후 폐기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법이 통과되었다면 도심지 안에서 교회 건축이 굉장히 힘들 뻔했습니다."

-춘천의 정치 지도자로서 춘천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춘천이 도청소재지지만 많은 면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고, 타 지역에 많은 것을 빼앗기면서 피해의식, 꼴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철 없는 도청소재지는 춘천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춘천 시민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춘천의 도로망을 춘천을 중심으로 수레바퀴처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와 전철을 조기 완공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도로가 마무리되면 춘천이 친환경도시로 수도권 근교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게다가 통일이 되면 사통팔달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춘천 성시화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이 잘 되어서 춘천 성시화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행 정재호 · 취재 최영조 · 사진 김미경]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우리 곁에 있는 山
안 마 산


금병산에서 본 안마산

새롭게 이미지 변신 중인 산

안마산 – 산 이름이 특이하다. 처음 들을 때, 안마(按摩)를 생각했다. 그런데 안마(鞍-안장안, 馬-말마)인 것을 알았다. 산 모양이 말안장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정상에 있는 안내판에는 안마산을 안화산, 아내산, 아나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안마산으로 알고 있다. 춘천에서 원주방향으로 나가는 원창고개 못 미쳐 길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다. 춘천시 석사동, 퇴계동, 신동면, 동내면 경계지역에 걸쳐 있는데 높이는 303m(참고:봉의산 301.5m)이고 말안장의 모양처럼 생긴 산이기에 봉우리가 2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는 길에 보는 산은 하나의 봉우리만 보여서 하나처럼 인식한다. 금병산이나 고속도로 진입해서 원창고개를 오르거나 내릴 때 두 봉우리의 산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산의 이미지

모든 사물에 대한 이미지는 아마 첫 만남이나 가장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1991년부터 춘천에 거주하기 시작해서 안마산과의 만남은 공동묘지를 통해서이다. 그때는 산 이름도 모르고 교회에 장례가 나면 가장 많이 하관을 하기 위해 가던 곳이었다. 이 산이 보이는 곳을 지날 때도 필자의 눈에 들어오는 곳은 공동묘지였다. 아마 춘천시민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은 이미지로 이 산을 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시신문에 "우리 곁에 있는 산"이라는 기획물을 연재하면서 춘천에서 이 이미지에 가장 걸 맞는 산이 안마산 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그렇게 친숙한 산이 되었다. 춘천시민들이 산을 오르는 빈도수에서 아마 봉의산을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통계는 필자가 산을 오르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만큼 안마산은 아침, 점심, 오후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제 안마산에서 공동묘지의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

이 글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에 발견된 아름다운 지명이다. 스무숲, 우묵베미, 뚝새골, 가마바우, 멈바우, 벌말, 무린게, 곰실, 새슬막, 애막골, 뒤뜨루, 거두리…. 이런 사랑스런 이름으로 둘러싸인 안마산의 재발견이 기쁠 뿐이다.

등산로

이제는 춘천시민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산이 된 것은 무엇보다 주택가가 산 밑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시내중심에서 멀리 있는 산이었지만 이제는 옆에 있는 산이 되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등산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를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졌다. 이용하다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진 것이리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들머리는 춘천중앙병원으로 오르는 길에 춘일교회를 지나서 만나는 옹벽 끝에서 좌측이나 스무숲성당 좌편으로 오르는 길이다. 스무숲성당으로 오르면 1봉(안마산 정상)으로 바로 오르는 길이 있고, 1봉과 2봉으로 오르는 갈림길을 만나기도 한다. 춘일교회 쪽으로 오르는 길이 좀 더 가파르다. 시간은 어느 쪽으로 오르더라도 30분 안이면 정상에 이를 수 있다.


▲사진출처: 블로그「더큰곰 별장」에서

안마산의 매력

1. 정상의 전망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춘천시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이야말로 안마산의 매력이다. 안마산에서 바라보는 춘천시의 모습은 계절에 따라, 그리고 산에 올랐을 때의 시점에 따라 다르다. 가을 안개가 자욱할 때, 산 중턱에 걸친 운해가 시 전체를 덮어 춘천을 옴타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들과 봉의산 정상만 보이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물론 아침운동을 위해서 올랐을 때였고, 그런 장관은 잠깐이었다. 곧 산위로 안개가 덮었기 때문이다. 가을이었기에 그리고 아침이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일출과 낙조에 물든 춘천시를 바라보는 것도 큰 감동이 있다.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춘천을 한 눈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곳을 추천하고 싶다. 지난 4월 9일 성시신문 편집위원들도 함께 이곳에서 춘천을 품는 시간을 가졌었다.


▲ 춘천시 전경, 멀리 봉의산이 보인다


▲ 정상에서 맞이하는 일몰, 멀리 삼악산이 보이고 앞에 보이는 작은 드름산이다.


▲ 안마산 정상에서

2. 아침 운동

접근성이 좋은 것은 아침운동으로 최적의 조건이다. 안마산은 산책로도 잘 준비되었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중턱과 정상에 설치되어 잘 관리되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

3. 등산

산의 높이는 작지만 2개의 봉우리를 왕복하고 여러 개의 코스를 이으면 한 나절의 등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침운동 뿐만 아니라 주 중에 가능한 시간을 이용한다면 등산의 효과를 보기도 할 수 있다. 다양한 등산로가 있기에 지루하지 않게 이용해 보는 것도 운동효과를 더 낼 수 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산책과 더불어 운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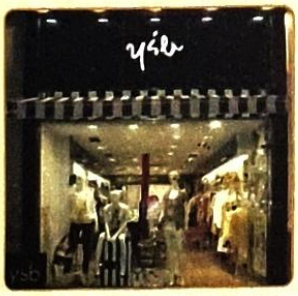

▲ 2봉에서 본 1봉(안마산)

4. 접근성

올 해 이 산 입구(한방병원 옆)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나눔의 숲이 생겼다. 춘천생명의 숲이 산림청 녹색지금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조성한 숲으로 보는 숲을 넘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 숲 이외에 산벚나무, 잔나무,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숲이 조성됐다. 숲은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 유모차 이용자가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숲을 지그재그로 가로 지르는 길이 300m의 길은 경사 8~10도를 유지했다. 길옆에는 안전 로프를 설치했고, 굽곡진 곳마다 쉬어 갈 수 있도록 의자를 배치했다. 이 길 끝에는 춘천시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전망대도 설치되어 있다.



[편집위원 고 재 만]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이전 오픈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이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 시 뉴 욕 운 영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예수 안에서 본 예술



박혜경 作/ 어머니의 넓은 사랑 / Oil on Canvas / 162.1 x 130.3 / 1996년

이 세상에는 어머니에 대한 글과 노래가 많다. 그러나 그림과 작품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매우 의아하다 어머니는 제한된 화폭에 담기엔 너무 크신 분이며 그의 사랑이 너무 넓기 때문일까? 아니면 작품의 모델이 되기에 자식들에게 너무 가깝고 친근하기 때문일까? 무엇보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분의 존재를 잊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무게와 차지했던 공간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일까. 이제 어머니가 누구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모습을 작품으로 남기고자 하나 어머니는 이미 곁에 계시지 않는다. 남기신 유품, 생전의 아름다운 추억과 유덕으로 화면을 채울 수밖에 없는 작가의 마음은 그래서 더욱 아프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떠나보내기 전 우리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

[편집위원 이 관 형]

아버지의 기도

제게 이런 자녀를 주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때에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제게 주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소서

-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5

아니!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써요?



고석연 (가정의학과)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항생제의 사용 여부는 모든 사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어느새 진료하면서 항생제의 사용여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진료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신문이나 방송은 연일 항생제의 오남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감기는 치료 하지 않아도 낫는다는 내용의 글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항생제의 오남용이라든지 감기약의 사용여부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 환자를 직접 대하는 임상의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얼마 전에는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가 이런 종류의 글을 쓴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서울대학교라는 이름과 약대교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전문적인 글이라고 받아들이겠지만 환자를 직접대하는 임상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다.

약 4년 전 쯤 친한 후배 의사의 3살 난 딸이 포진성구협염이란 병에 걸려서 병원에 다니다가 목에 농양(고름주머니)이 생겨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다. 목에 있는 농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해야 했고, 목은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섣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약물치료를 시행했는데, 다행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수술은 하지 않고 약물치료로 완치 받을 수 있었다.

이 아이를 진료한 의사는 포진성구협염이 바이러스성 질환이므로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교과서적인 진료를 행하였다. 특별히 이 병은 고열이 5일정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열이 많이 나고 오래 나는데도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이 아이는 목에 농양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수술직전까지 가야 했다. 만약 항생제를 일찍부터 처방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항생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앓고 있는 것이 정말 감기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설령 감기를 앓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세균성 질환(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의 동반 여부는 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라 세균에 대한 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일이 생길 거라고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세균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세 번째로, 무분별한 항생제의 사용이 내성세균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은 내성세균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이 일 때문에 의약분업이 생긴 것이고, 이제는 약국에서는 처방 없이 항생제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의 아들, 딸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환자들에 비해 항생제를 빨리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충분히 길게 사용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분명히 환자들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자신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치료하기를 바랄 것이다. 감기환자(환자 자신이 감기라고 느끼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사용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녀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성경적 자녀교육에 대한 지침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가정에 대해 한 번씩은 생각하게 된다. 이 지면을 통해 가정 중에서 특히 자녀에 대한 의미를 살피보고자 한다.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른 지침과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첫째, '가정과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심비에 아로 새기자!

하나님은 첫 가정을 만드실 때 한 남자(아담)와 한 여자(하와)를 지으셨다. 이에 그들에게 결혼식 주례를 하시면서 복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6~28)고 하셨다. 이 복을 받을 당시의 아담과 여자는 범죄 하기 전, 곧 죄가 없는 무죄의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의 몸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모두 무죄한 상태, 가장 거룩한 상태, 가장 고귀한 여호와의 백성들 뿐이었다. 그렇게 죄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이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한 가정을 허락하심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말 2:15)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모시고 사는 자들'로 양육해야 한다.

둘째, '가정을 영적 모태요, 안식처로 만들라'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아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뚝 서야 한다. 그래서 아비와 남편들을 가장(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일컫는다. 육체의 아버지는 곧 성부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이미지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비들이 성령 충만하여 자녀 앞에서 성부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애하심, 사랑이 많으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비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시청각 교재이기에 아비들의 영적 책임이 큰 것이다. 또한 어머니요 아내인 분들은 집안의 영적 온도계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를 '집안의 해', '안의 해', '아내'라고 송길원 목사는 재미있게 설명했다.

셋째,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는 것이다.

양육한다는 말에는 기르다, 먹이다, 교육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교육적인 의미가 강하다. 칼빈은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품게 하라고 번역했고, 헨드릭슨은 그들을 조심스럽게 기르라고 주석했다. 또한 '교양'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이요,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矯正)을 의미한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실패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경고를 받는다. 삼상 2:12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분명한 성경적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훈육해야 한다. 이에 교회학교 출석, 여름과 겨울시의 성경캠프와 성경학교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의 영성훈련에 주의를 집중하기를 부탁드린다.

넷째, '매일 구체적으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것이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 중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하겠다. 스토미 오마샨이 쓴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다(나침반사)〉라는 책의 내용을 자녀의 이름을 넣어 매일 축복 기도하자. 필자도 수년 째 세벽마다 이 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부모들과 '기도모임'을 만들어 매일 이 책을 사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다섯째, '함께 영적 성장을 투명하게 이루라'는 것이다.

부모의 영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자녀들이다. 부모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외식적인 신앙에 길들여진다. 더 나아가 부모의 두 얼굴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적개심도 품게 된다. 만약 부모 된 자들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이라면 그것만큼 확실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QT도 하고, 주일날 들었던 설교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함께 영어로 주기도를 외우고, 함께 성경이야기를 나누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정에 일상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품은 자녀로 키우자'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미치는 곳까지 우리 자녀들의 시선과 마음이 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방학 중 선교 유적지 탐방, 단기선교 및 단기봉사 프로그램 등에 참석하게 해서 세계를 품게 해 주자! 또한 '나는 학원 선교사이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길 근 수 목사(세인교회)

예 향

인공호흡법의 시작

장난이 심한 아이가 가족과 함께 강가로 소풍을 갔다. 얕은 물가에 놀던 아이는 금방 시시해지기 시작했다. 몰래 깊은 물로 들어간 아이는 자신의 힘으론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사람들이 아이를 찾았을 때는 이미 소년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끌들고 "숨이 멈추었으니 숨을 불어 넣으면 살 것"이라며 자신의 숨을 계속해서 아이의 입에 불어 넣어주기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차마 그렇게 애쓰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일굴을 처다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소년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물을 토해내고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아들을 살려낸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알려졌고, 인공호흡법이라는 구급책을 만들어낸 것이다.

[편집위원 최상도]

지성근 목사의 일상생활사역 세미나

"일상생활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사역"
이라는 관점과 "보냄받은 존재의식 고취"

- 일 시: 5월 21일 수요예배후 9시-10시
- 장 소: 춘천IVF회관(252-5200) • 회 비: 무료
- 대 상: 일상생활의 영성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 평신도
- http://www.1391korea.net

성 시 만 평

이 관 형
jysince93@hanmail.net



"행복한 우리집 가장"





햇빛이 지고 달빛이 조용히 비추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서둘러 주변을 돌아보았다. 어엉.. 어엉... 다들 어디로 갔지? 멋지게 생긴 나비 따라, 맛있는 풀을 더 먹으려는 욕심에 오다보니 혼자 떨어져 버린 것이다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다 엄마... 아빠...

잃어버린 어린양... 미아 사전예방법



점점 더 늘어나는 잃어버린 아이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 하셨던 한 마리의 어린양...성경에는 다만 몇 줄 쓰여 있지만 어린양의 두려움은 아동복지기관에 몸담고 있는 나에게는 간절하게 다가온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그날만큼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린이날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아동을 유기하는 수가 더 많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들 중 실종된 수가 8,602명이나 된다. 이 중에 59명은 지금까지 찾지도 못하고 있다. 통계로는 복귀율이 99%에 이르지만 우리 사회의 누구도 1%에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우리의 자녀가, 손자가, 조카가, 반 아이가 사라질 수 있고 우리는 그 일로 평생 가슴앓이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사전예방주사 – 미아예방교육

문제가 일어난 후 해결하는 것은 비용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갖고 출발하게 된다. 지혜로운 방법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 먼저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미아예방교육이다. 최근에 발생된 예슬이, 혜진이 사건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민감하게 대처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다. 미아예방교육은 아동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유괴범의 심리적 특징과 유괴상황을 인형극, 역할극을 활용하여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예방주사는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적이다.

빨간모자 꼭꼭이 인형극 창단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오는 5월 2일(금) 오전11시 춘천경찰서 강당에서 미아예방인형극 '빨간모자 꼭꼭이' 창단식을 갖는다. 미아발생률이 높은 유아들에게 친숙한 인형극을 활용하여 미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종/유괴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가들이 제작하였다.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가정의 달 5월에 사랑하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빨간모자 꼭꼭이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어둠을 헤치고 드러나는 모습은 늠름한 우리 아빠였다.
우리 아빠는 나를 잊지 않고 계셨다.
아가야,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고 주 애 부장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

월드비전(회장:박종삼)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최중범)은 '제10회 한마음등반대회'를 4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촌 구곡폭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총 1,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한마음등반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연을 벗 삼아 손에 손을 잡고 등산하여 참가한 장애인에게는 성취감을, 비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99년부터 10년째 매해 4월, 장애인 주간(장애인의날 4.20)에 개최되고 해마다 참가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홍천, 경기도 양평 등 인근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등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감대 형성의 장(場)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등반 이후, 복지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나누고, 비누방울이벤트, 페이스페인팅, 스마일콘테스트, 볼풀공넣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함께 즐겼고 어린이태권무, 벨리댄스, 초대가수 김태우와 god의 공연도 펼쳐졌다.

이달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20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넘기게 하소서. 복음의 권능으로 정직과 정의가 앞장서는 나라로 복받게 하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축복하소서. 또 춘천의 인물 한승수 국무총리와 허천국회의원을 요셉 같은 일꾼으로 세우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평화적 통일의 시대가 열리게하소서.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의 활성화

모든 기독교 연합운동에 활력을 주사 춘천의 모든 교회가 한 교회처럼 연합하게 하시고, 지역선교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소서. 미신우상이 타파되고 이단들의 역사가 깨어지게 하소서. 청소년비전캠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춘천과 강원도를 위해

시장과 도지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인도하소서. 춘천이 경제 문화가 활성화되며 선교의 도시, 청정도시, 밝고 아름다운 건강도시가 되게 하소서. 고속국철과 고속도로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마다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세호 이영규 권기천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노인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시험 없이 취득

노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자격증 지금이 기회!!

강원도 제2호 지정교육원

■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요양제도에 필요한 자격 (나이, 학력,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신청가능)

일반 신규반 00명, 경력자반 00명, 국가자격증반 00명 모집

※ 기존의 간병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봉사요원은 이제 (요양보호사)국가 자격으로 기회입니다.
※ 본 자격증을 취득 하시면 재가복지, 가정파견센터, 노인요양원 시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필요하신 시설이나 개인간병 필요하신 분 연락요망) ■쾌적한 환경 Ⓟ넓은 주차시설 셔틀버스 운행

강원요양보호사교육원
춘천시 동면 월곡리 192번지(동면 옥평산 옆)
033)241-2660, 242-7664(FAX겸용) HP. 011-448-7660, 011-668-8137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11>

어메이징 그레이스 (Amazing Grace)



찬송가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간절함과 속죄의 심령을 고백하는 절실한 노래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는 영국의 '존 뉴턴' 목사가 작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예상인이었는데 흑인노예를 싣고 항해를 하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의 위기에 처해지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여 살아난 후, 회개하며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 작곡은 미상으로 흑인 영가에서 나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존 뉴턴은 나중에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활동하며 노예무역의 폐지에 앞장선다.

그를 스승으로 하여 영국의 노예무역에 정치적으로 맞선 이가 '윌리엄 윌버포스' 인데, 이 영화는 그의 젊은 시절의 투쟁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으로 나와 신앙과 양심에 따라 기존의 세력에 용감하게 투쟁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정치현실과 사회운동 및 인권문제에 대해 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릭 메택시스(Eric Metaxas)의 동명저서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는 주로 007 등 액션영화로 유명한 마이클 엡티드가 모처럼 진지하고 무게 있게 연출한 작품으로 평단의 찬사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영화의 줄거리와 감상에 대하여 어느 네티즌의 탁월한 글이 있어 부분 인용하여 소개한다.

"타고난 정치적 재능으로 스물한 살에 벌써 하원에 당선된 윌버포스, 그러나 그는 명예와 정신적인 만족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합니다. 결국 그는 〈신앙이란 늘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존 뉴턴의 충고로 양심을 선택합니다. 당시 영국에 엄청난 국익을 보장해 주었던 노예무역의 참상과 죄악성을 폭로하고 고발하며 노예폐지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국왕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로 노예제 폐지 법안이 수십 차례나 거부되는 가운데 많은 좌절과 절망을 거듭하지만 20년만인 1807년 결국은 하원을 통과합니다.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시대의 종교와 정치를 향해서도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옳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인공 윌버포스 역에 판타스틱4 시리즈의 히어로 '이안 그루퍼드' 가 맡았고, '알버트 피니가' 존 뉴턴, '마이클 겜본' 이 찰스폭스 경으로 나오는 등 유명한 조연들의 연기가 잘 받쳐주고 있다. 영화에서 윌버포스가 동료들과 함께 벌인 집회가 최초의 현대적 정치시위로 기록된 점이 흥미롭다. 올해 3월 말에 국내 개봉되었지만 다른 흥행작에 묻혀 진 진주 같은 작품이다.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책 소 개

「바나바행전」



이강천 지음. 푸른초장출판사, 2008

책을 소개할 때, 책의 내용을 보고 소개하거나 추천하곤 한다. 책의 저자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책 「바나바행전」은 저자를 알기에 소개하고픈 마음이다.

저자는 60살을 넘어섰다. 그동안 서울신학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목회를 하기도 했으며, 교단 선교국장으로 사역하기도 했다. 지금은 충북 옥산에 있는 바나바훈련원 원장으로 목회자, 선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를 재무장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의 신앙과 사역을 정리하여 간증과 같은 자서전의 형식으로 저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세워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다. 그 과정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사는 신앙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짧은 글을 통해서라도 그런 영성의 강한 감동이 넘치는 계기를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

그는 삶으로 배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편집위원 고재만]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Y신협 04073-13-016959
예금주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3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광영감리교회	광명장로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담장로교회	예수촌교회	
주향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 춘천지사	
자연유치원	디티피아	
앤투어	쏘인테리어	
씨앗컴퓨터학원	제시뉴욕	
김 기 태	김 은 선	김 길 홍
김 진 삼	김 현 철	김 영 명
박 동 환	신 성 균	심 인 섭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의 석	오 흥 수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지 상 근	최 상 호
최 치 광	최 예 석	한 순 수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순 복		

춘천기독교연합회 회비 납부 교회(2008. 3월 이후)

광영교회	광영교회
나눔교회	늘사랑 교회
동부교회	동신교회
베드로순복음교회	신매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교회
새춘천 교회	소양제일교회
소양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와이신협
온누리 교회	은혜교회
원평교회	제일감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사랑의장로교회	춘천장로교회
김 혜 경	이 복 규

인쇄·출판·판촉
춘천장고기회
디티피아
최상철 집사 / 김경희 집사
(춘천제일장로교회)
Tel : 033-263-5152
Fax : 033-242-5121
H.P : 010-3044-8035
chsch1784@yahoo.co.kr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메니저와 상담하세요.
평일,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 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소리 없는 기근이 오고 있다

이 영 규 목사(새날성결교회)
본보편집위원

요즘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라는 말을 더 자주 듣는다. 지구촌의 뜨거운 이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처럼 염려할 것이 없다.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추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눅12:30)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겐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선한 것이요, 음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물에 지배를 받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히13:9)는 행실의 결말의 입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국 교회가 머리를 들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의 등불을 켜놓음으로써 맛을 잃은 소금으로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작금의 위기에서 역경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특히 육체에 따른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했으면 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고(눅12:15)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요1:4; 요일5:11). 우리는 이때를 분별하며, 우리 자신에 관하여도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눅12:56-57). 그것은 삼가 탐욕을 조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며,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 안에 한 기근을 보내겠으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목마름도 아니요 다만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달음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암8:11-12)는 말씀처럼 소리 없는 말씀 기근(silent Famine)이 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강화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의 미혹에 "주의하라."(막13:5,23)고 당부하신 것처럼 주의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의 보물창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와(마13:52) 성도들을 풍성케 하여야 한다.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딤전4:1)은 경건하게 살기보다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갈수록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딤후3:13).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며(골3:2), 땅의 일들을 생각하기 보다는(빌3:19)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여야 한다(딤후3:14). 우리를 다스리며 생활방식이 하늘에 있어 그렇게 걷는 자들을 눈여겨보면서(빌3:17; 히13:7) 우리를 위하여 마련된 의의 왕관을 주시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딤후4:8),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빌2:16),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늘에 소망을 쌓아 두자(골1:5).

❀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연도연합회

1) 새소식반주간 교사 강습회
일시: 3월 10일 ~ 5월 19일 매주 월요일 12주간
오전반 10:00~1:00 / 저녁반 7:00~10:00
장소: 춘천제일감리교회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에스컵

1) 청소년 리더십훈련과정 "위대한 인생"
일시: 4월 26일~7월 12일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6시
장소: 에스컵 사무실 회비: 3만원(기독동아리, YPMC는 2만원)
양육과정: 기초신앙다지기/ 인성훈련/ 비전발견하기
담당자: 신유정 간사(010-5422-2321)

2) 에스컵 프레이즈
일시: 5월 17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강사: 올보위제트 "회관하 교사"(시인, 작사가, 코스타 강사
-영훈고등학교 교사 / 영훈선교회 대표
※청소년들과 기독 교사들을 위한 집회로 드림.

3) 기독동아리연합체육대회
일시: 5월 15일(목) 장소, 시간 추후 공지
문의: 에스컵클럽 club.cyworld.com/yescomelove
한승연간사 010-3369-6994, 033)244-5400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제주선교100주년을 위한 'Love 제주' 여호수아 기도회
일시: 5월 2일(금) 장소: 춘천CCC회관
문의: 252-0542, 254-5776

2) '아름다운 만남 진실한 사랑'
일시: 5월 11일(주일) ~ 12일(월)
문의: CCC본부 기정선교원 02-394-0635

◆ 예수원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문의: 춘천지부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2) 2008 China FAN 컨퍼런스 <원주>
일시: 2008년 5월 14일(수 ~ 15일(목) 오후7시
장소: 원주 영강교회(서재임목사 시무, 행구동)
주최: 원주시기독교연합회 주관: 예수전도단
강사: 피터 수 목사("하늘에 속한 사람"의 저자 윈 형제의 영적스승) 프레드마컷(YWAM선교전략가, YWAM NSI 책임자)
예배: 서울 화요모임 예배팀(윤주형/박용규)
문의: 춘천지부 033)252-1128, 070)7558-0135

◆ IVF

1) RUN 연합중보기도모임
일시: 5월 2일(금) 오후7시 장소: IVF회관

2) 새벗연합수련회
일시: 5월 4일(주일) ~ 6일(화) 장소: 강촌교회

3) 전국수련회 · 전국간사 조장 모임
일시: 5월 15일(목 ~ 17일(토) 장소: 원주 명성수양관

4) 지성근 목사의 일상생활 사역세미나
일시: 5월 21일(수) 저녁9시 장소: IVF회관

5) 전국수련회 장원권 조장 모임
일시: 5월 23일(금 ~ 24일(토) 장소: 강릉
문의: 252-5200

◆ JDM

1) 리더의 밤
일시: 5월 6일(화) 오후7시 장소: 춘천회관

2) TTS 수련회
일시: 5월 16(금) ~ 17일(토)

3) 제자행전위인 일일찻집
일시: 5월 24일(토) 장소: 강원대학교백령관 5층
문의: 252-3192 / 010-9064-3192

◆ GBT성결한영선교회

1) 전국비전기도회
일시: 5월 6일(화) 오후 7시 장소: 서울 성광교회 5층
말씀: 정진 선교사(서아시아대) / 인도: 윤누가 선교사

2) 위클리프스쿨 리트릿
일시: 5월4일(주일) ~ 5월 5일(월) 장소: 서울 제자들교회

3) 위클리프스쿨
일시: 4월 1일 ~ 6월 3일 매주(화) 오후7시 장소: 예닮교회
문의: GBT 춘천지부 이지혜 간사(017-383-2416
[chuncheon@v2025.or.kr]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 새벽날개워십선교단 모임

1) 워십댄스 토요모임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5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2) 어린이 워십반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5시 문의: 263-6022, 017-374-2440

◆ 제이락(춘천연합찬양단)

1) 정기예배
일시: 5월 5일(월) 오후7시30분 장소: 효자감리교회
문의: 박유식 010-9368-9856

1) 제이락 멤버 2기 모집
모집기간: 5월 31일까지 분야: 싱어 · 악기 · 스텝
대상: 춘천을 품고 예배하길 원하는 모든 분(20세 이상 세례 교인)
문의: 1차 온라인 접수 [제이락 클럽 http://club.cyworld.com/jlocl
2차 오디션(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박경순 010-3158-0423

◆ 명화교회 다니엘 공부세상

※습관을 바꾸어주는 자기주도교육
대상: 6~7세, 초등학생, 중학생 (수시모집) www.schoolaity.co.kr
장소: 퇴계 주공1단지 정문 앞
문의: 1577-1225, 033)261-8745, 010-2032-8160, 010-3379-7962

◆ 심동/유아예배를 위한 짧간모임 목회이 인형극 창단식

일시: 5월 2일(금 오전11시 장소: 춘천경찰서 강당
대상: 200여명(유아 ·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 인형극단 관계자 등)
문의: 242-0051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

◆ (재)기독교한국호산나교회

1) 기독교대안학교 학생모집
기독교세계관과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대안학교형태의 국제학교대상: 중고교생 www.hyoshinschool.com)

2) 영어교사모집
대상: 영어를 구사하는 신실한 크리스천

3) 기독교세계관 독서토론모임
일시: 월, 화 오후5시~7시(전화문의후 방문요)
장소: 효신선교회 사무실(온의동 한보공예관 5층)
문의: 011-9737-1919 방연규재단총무

◆ EF(북유럽지, 유학과 강연의 세계)

일시: 5월 22일(목) 오후6시30분
장소: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
예약 사이트: club.cyworld.com/2008ef

◆ 동부교회 창립69주년

롬빔비아후사신학교건축헌당 감사 및 장로 · 집사임직, 권사은퇴임직 추대예배
일시: 5월 4일(주일) 오후4시 장소:동부교회예배당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교회헌수막만 합니다
원단가 인하로 대폭 내렸습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 미 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풍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 성시화를 위한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 본부 월례 사무국 예배가 4월 16일(수) 오전11시 본부에서 있었다. 그레이스교회 박기권목사는 에스겔 1: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 사명을 감당했던 에스겔처럼 성시화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비전을 구하며 주님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사랑의 장학금 수여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이사장:심인섭)은 협동조합 정신에 의거 수익금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 4월 11일(금) 2008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고등학생 5명(임현규 춘천고1, 황상덕 춘천기공3, 홍솔이 춘여고3, 정서전 춘고2, 황은지 춘여고2)과 대학생 1명(박형빈 한림성심대2)에게 학자금 전액을 1년 동안 지급하고 성적이 일정수준 유지될 경우 졸업시까지 계속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 춘천YMCA 청소년연합회 인준



2008 춘천YMCA청소년연합회 입회식(회장:박민영,춘천기계공고2)이 4월 12일(토) 오후2시 춘천YMCA후평동센터에서 진행됐다. 4개 연합회 17개 동아리가 청소년YMCA의 목적문에 따라 성실히 활동할 것을 맹세하였다.

■ 기독영화 상영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회(위원장:최영조)는 성시신문에 소개된 기독영화를 매월 1회 상영하기로 결정, 4월 17일(목) 저녁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새도우 랜드"를 첫 상영하였다. 김춘배편집위원의 영화소개로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에 다양한 기독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 학원복음화대회 'APPOINT'



제12회 강원지역연합 학원복음화대회가 예스컴 주최로 4월 19일(토) 오후6시 강원대 실사구시관에서 개최됐다. 강사 이원호목사(소양교회)는 '겐그레아의 결단'을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며,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찬양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뜨거운 시간이 었다.

성시화와 북한선교를 위한 2기 성시아카데미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한균) 성시아카데미(원장:피종호)가 주관하는 2기 성시아카데미가 4월 7일(월) 오후7시 제일장로교회에서 개강, 매주 월요일 11주간 진행되고 있다. 미래성시지도자와 통일선교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개강식에는 성시화운동 공동본부장 양인평장로가 "21세기 성시화운동의 전망"을 주제로, 21일에는 베기찬전청와대비서관이 "남북관계의 현단계와 전망-통일의 새로운 나라"를 주제로, 28일 이원호대구성시사무총장은 "성시화운동의 저변확대"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5월에는 허문영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손규하부산사무총장 · 유임근사무국장 등 성시화와 통일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결핵의 고통을 함께 한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김주환)는 4월 24일 오후6시 강릉 경포 현대호텔에서 2008 정책세미나를 열고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운동' 시작을 선언하였다. 25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는 18개 시 · 군 기독교연합회장과 임원, 장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강원도 결핵퇴치 운동본부'를 출범 모금운동을 펼쳤다.

축구로 연합과 전도를



제3회 춘천시 기독교연합회장기 교회대항 축구대회가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 주최, 춘천시교회축구연합회(회장:정하수) 주관으로 4월 9일(수) 오전9시부터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렸다. 이날 8개 팀이 출전하여 치열한 경기 끝에 춘천제일장로교회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준우승 동부교회, 공동3위 석사교회와 소양교회가 각각 차지하였다.

희망을 주는 동부연회



동부연회(감독:김남철 속초교회) 제67회 전체회의가 4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안디옥교회(담임:유진형)에서 개최됐다. 김진선지사, 이광준춘천시장, 김창수(신성교회) 박상혁(원주태장교회) 권오서(춘천중앙교회) 박치종(원주삼천교회) 등 동부연회 감독들과 1,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찬예배를 시작으로 성대하게 치뤘다. 오후 '섬김의 밤'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걷은 성금을 춘천시에 장학금으로 기탁하였다.

■ 22회 홀리클럽기도회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 4월 21일(월) 오전6시30분 은혜교회(담임:지용찬)에서 홀리클럽회원인 허천장로 국회의원재선 감사예배 및 기도회를 가졌다.

허천장로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주신 회원들과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최인규장로(포항제일교회)는 조수, 부력, 중력 양수발전소에 대해서 연구발표하였다.

■ 케이스 컨퍼런스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 최기원)은 4월 24일(목) 제17회 '4월 Case 컨퍼런스'를 실시, '친부에 의한 신체학대사례'를 주제로 사회복지유관기관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또 최근 미아 및 유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유괴와 미아가 없는 "슬픈 숨바꼭질" 캠페인을 5월부터 실시한다.

■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정기총회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진상용) 제19차 정기총회 및 선교특강이 4월 25일(금) 오후7시30분 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회장 양봉남장로(춘천시청), 수석부회장 김영래권사(강원농협지역본부), 부회장 장기영집사(강원일보) 정동준안수집사(강원도교육청) 김지현집사(앤투어) 김동한장로(춘천시청), 총무 박찬주집사(월드비전), 서기 장만성권사(한림대), 회계 엄선영집사(월드비전) 등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최바울선교사(인터콥본부장)는 "21세기 세계환경과 선교접근전략"을 주제로 퇴직 후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 지역인재 양성 과정



(사)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원장:안동규)는 4월 25일(금) 오후6시 춘천베어스관광호텔 봄내홀에서 제5기 강원청년지도자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5기 88명의 교육생들은 17회에 걸쳐 리더십, 지역발전, 경제 문화 교양 등의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강사의 특강과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밟게 된다.

■ 춘천성시합창단 창단연주회



춘천성시합창단(단장:정세환) 제2회 창단연주회가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 주관으로 4월 28일(월) 오후7시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매일 주만 섬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등 10여곡의 아름다운 성가곡을 선사하였다.

취재 · 김미경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웰빙 삼계탕

장삼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장삼원으로 오십시오!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메뉴 :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 닭도리탕 · 한방백숙



※대형 주차시설 완비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예약 문의 (033)254-9191 · 9199
H·P 011-9795-5570

대표 이 진 배 장로(성광교회)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 방향 500m지점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 쾌락, 건강, 명예, 권력들을 도구로 삼아 행복을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길은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돈을 가지고 보면, 돈으로 인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재산상속으로 형제가 싸우며
친구를 버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럼 쾌락에 있을까요?
쾌락 속에는 언제나 허전함이 뒤따르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권력과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키 위해
불안과 초조속에 지냅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어도 마음의 공허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평화와 만족과 기쁨,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교회소개란]

각 교회 전도지로 사용하세요.

진리의 길

춘천성시화운동본부